



조그마한 체험



임성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주시원장
064-751-2812

창문 사이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햇살에 나는 그만 단잠을 깨우고 말았다. '바쁜 하루하루의 생활속에서 오늘은 꼭 쉬려고 했는데.....?'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보았다.

새벽 찬 기운이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어제는 비가 와서인지 기리가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인다. 습관처럼 피어버린 담배를 한모금 빨았다. 금세 담배 연기는 나의 목을 휘감고 말았다. 아직도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주위의 조그마한 것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구나!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나는 그 정보들을 알기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다. 아침이면 열심히 일터를 향했고 앞만 보고 뛰지 않았던가! 창문 너머 길 거리에 보이는 개나리꽃들도 이제는 시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만 같다.

나는 그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을 때 한번도 그들을 봐주지 않았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유유히 주위 꽃들과 풀 한 포기과 속삭이며 정상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정상만을 보면서 무조건

앞만 향하여 뛰다시피 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정작 정상에 오르고 나면 자기 자신의 허탈감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상에 오르긴 했지만 오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나 또한 그들과 다름게 뭐가 있을까?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에 맞춰 내 자신은 그림 조각 퍼즐처럼 변해가고 있다. 나는 조그마한 손가락을 들고 부랴부랴 동네 뒷산을 향해 나섰다.

아주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 했다. 날씬했던 나의 몸은 이젠 뚱뚱하고 배가 나온 중년이 되어 있었다. 정말이지 몇 해 전애기 같더니, 세월은 어느덧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다. 연대만인가! 이런 자연의 스승을 지적에 두고 나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되어 자기기만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이름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능한시하고 "유명 연예인이 사채 빌려 쓰다 못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기북황으로 일터는 칼바람이 불고 있대", "어느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최소 백여 명이 죽었다더라", 최근 인본 보도를 보면 나 자신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뉴스에 익숙해질까 심히 두렵기까지 하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런 소리만을 부의식중에 들으면서 살아왔지 않았던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혼하고 혼한 노랑꽃이 제비꽃과(뎃말:과)의 야생화를 통해 본 나의 눈은 너무도 비참함 모습이었다.

작고 혼한 풀 한포기, 나무들, 이름모를 잡초, 거리에 나뭇구는 풀들, 이렇게 모여 자연을 이루는 진리를 나는 알지 못하고 막연히 큰 들에 자연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하찮고 사소한 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역동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지 않았던가!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아닐까? 어린시절의 소중한 체험들, 대학생활의 낭만들, 어렵고 힘든 시련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날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 것이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어린시절 수많은 꿈을 꾸지 않았던가! 그 허무맹랑한 꿈들과 어린 동심의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한가히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갈 수 만은 없지 않는가!

나는 소중한 체험을 한 것 같다. 오솔길이 끝나는 바윗돌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니 온 몸이 힘이 솟구치는 것 같다. 다시 왔던 길을 향해 발을 재촉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의 하찮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의 일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며 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 기술표준 2009.5